

믿음의 삶을 이루어가며- 우리 계획 이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아이들이 태어난 날부터, 아니 그 이전부터, 자녀들을 위한 계획으로 분주합니다. 그 계획 중 어떤 것은 아이들이 평생 지닐 이름이나 꿈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대학을 찾는 일처럼 한 사람의 인생에서 중요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것은 학교 첫 날에 무엇을 입을 것인가와 같은 사소한 것일 겁니다. 오늘 아이의 저녁식사를 직접 요리해 줄 수 있게끔 시간을 낼 수 있을까? 진실은,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아이들을 위한 계획을 세우는 데 삶의 열정을 쏟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매일 최선을 다해 자녀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세우고 계신 계획을 알 수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도 알 수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계획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예레미야 29장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노니... 너희에게 장래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희망입니다.

젊은이들을 도와 그들이 희망찬 미래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며 평생 지속될 믿음에 기초한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자신의 신앙, 아이디어, 독특한 은사를 교회와 세상과 나누도록 영감을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가져다 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성령강림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심을 기뻐합니다. 성경강림절 특별헌금에 대한 우리의 지원은 하나님의 희망과 미래와 연결되어 믿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청년의 사역을 지원합니다. 청년자원봉사 프로그램(YAV), 장로교 청소년 트라이에니엄, "어린이 교육은 곧 세상의 변화" 프로그램과 여러분 교회의 지역공동체 지원 사역을 통해 우리는 젊은이들을 서로 연결하고 돌보는 사역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계획할 수 있는 것 이상의 삶과 미래를 형성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관대한 마음으로 기부해 주십시오, 우리들이 조금씩 기부하면 큰 기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당신의 계획을 저희가 듣게 하소서. 저희가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이 한 평생을 간직할 신앙에 기반한 삶을 구축할 수 있도록 인도할 때, 당신의 뜻을 받들어 기꺼이 돕는 손과 마음을 허락해 주소서.* **아멘***.*